

# 2017학년도 9월 모의평가

## 국어영역 해설 및 정답

### • 1교시 국어 영역 •

1	①	2	②	3	⑤	4	⑤	5	④
6	④	7	③	8	③	9	⑤	10	③
11	②	12	②	13	③	14	①	15	⑤
16	③	17	④	18	④	19	④	20	③
21	④	22	③	23	④	24	⑤	25	①
26	⑤	27	④	28	④	29	④	30	②
31	⑤	32	②	33	⑤	34	④	35	⑤
36	①	37	⑤	38	⑤	39	②	40	⑤
41	⑤	42	①	43	①	44	④	45	①

3점 문항 : 4, 7, 14, 18, 20, 24, 29, 33, 38, 41, 45번  
(나머지 문항은 2점씩)

### 총평 : 절대 현혹되지 마소

- 이원준

EBS 연계율 70%를 유지하면서 EBS를 변형한 사실문제집의 적응을 피하라는 정치권의 모순된 요구가 평가원에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그리고 A/B형이 통합되면서 이번 수능은 문과·이과 학생들의 형평성까지 고려하여 출제하여야 한다. 6평 유출 사건도 평가원에게 엄청난 부담감을 안겨 주었다.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평가원이 9평 국어영역에서 선택한 방향은 무엇일까?

일단 9월 모의평가에서는 일어난 변화부터 살펴보자. 지문 순서에서 문학과 독서가 바뀌었고, 고전 소설이 학술텍스트와 결합되어 장문독해로 출제되었으며, 11, 12번 문법 문제도 형태론과 통사론이 통합되어 출제되었다. 또한 예술-기술도 통합되어 출제되었다. 즉, 제시문의 가독성은 좋아졌지만, EBS연계가 체감되지 않을 정도로 지문이 완전히 재구성되었다.

평가시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학습한 내용을 평가하여 성취도를 측정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내신과 같은 지식형 시험이고 다른 하나는 잠재 능력을 평가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능과 같은 사고형 시험이다. 사고형 시험의 확대는 사회적 변화의 추세에 따른 당연하고 불가피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왕의 수능 출제 경향은 시대의 변화를 따르지 못한 채, 가독성이 떨어지는 고전 문학 작품을 그대로 출제하는 차원에 머물렀다. 그러나 신유형은 문학 작품을 출제하더라도 가독성이 뛰어난 제시문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독해와 사고 능력을 측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문법 영역과 독서 영역도 융합을 통해 같은 효과를 노리고 있다.

새로운 출제 유형을 통해 평가원이 바라는 것은 제시문의 내용이 기술 문제, EBS 연계교재, 사실 문제집 등과 부분적으로 겹치더라도 새로운 관점과 형식으로 재구성하여 사전 경험이나 지식이 있더라도 유리한 영향을 미칠 수 없게끔 출제하는 것이다.

신유형이 출제되어 사전 경험이나 지식의 효용은 떨어진 대신 제시문의 가독성은 더욱 높아졌다. 즉, 수능의 취지에 맞지 않는 낱수의 비용은 증가하고, 정면 승부의 이익은 높아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수능 신유형과 정면으로 맞서 싸워 이기자.

### • 문항 분류 기준 •

T1 정보의 확인 과 재구성	제시문에 나타난 정보 및 정보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다른 표현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함.
T2 주제 요지, 구조 파악	제시문 전체 또는 부분의 주제, 중심 생각과 요지를 파악하는 능력을 측정함. 또 제시문 전체의 구조와 전개 방식을 파악하는 능력을 측정함.
T3 의도, 관점, 입장 파악	글쓴이 또는 제시문에 소개된 인물이 가진 의도, 관점, 입장, 태도를 파악하는 능력을 측정함.
T4 정보의 추론 과 해석	제시문에 제시된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보를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함. 또 맥락을 고려한 해석을 통하여 정보가 가지는 적합한 의미를 밝힐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함.
T5 정보의 평가 와 적용	제시문에 주어진 논증이나 설명의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함. 제시문에 소개된 원리를 새로운 사례나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함.

정답률 : 매가스터디 9월 1일 데이터를 근거로 추정하였습니다.

### [ 화법 ]

#### [1~2] 식용 꽃에 대한 강연

##### 1. 정답률 94% 말하기 전략 파악하기 (T2)

- ① 제시문 차를 먹은 경험, 화전을 먹은 경험은 청중의 경험에 해당하며, 이를 질문을 통해 이끌어내었다.
- ② 요약하는 내용이 없었다. 문단 간 접속사를 살펴보면 내용이 계속 추가되고 있다. '그런데'는 화제 전환을 위한 접속사이고, '또한'은 추가를 위한 접속사이다.
- ③ 우리의 전통 풍습은 제시되었지만 역사적 사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습관과 사건을 구분하라는 문제.
- ④ 강연자가 현재 '요리 연구가'라는 것은 밝혔지만 과거의 경력은 소개하지 않았다.
- ⑤ 강연 주제에 대해 안내했지만 진행 순서에 대해서는 안내하지 않았다. 강의의 내용과 순서를 구분하는 문제.

##### 2. 정답률 88% 정보의 평가 (T5)

- ① ㉠이 떠올린 질문에 해당하고, ㉡이 그 질문에 대한 답에 해당한다.
- ② ㉢은 강연자가 언급하지 않은 내용이다. 강연자가 언급하지 않은 내용을 사실과 부합하는지 비교할 수는 없다. '갈다', '다르다'와 같은 개념은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이다.
- ③ '학교 화단의 꽃'은 강연자가 언급하지 않은 대상이며, 식용이 불가능한 것이 있다는 내용은 들은 내용에 해당한다.
- ④ ㉡에서 동아리 행사 내용은 청자의 문제에 해당하고 식용 꽃 만들기를 하기로 한 것은 들은 내용의 활용에 해당한다.
- ⑤ ㉡에서 '식용 가능'과 '식용 불가'로 꽃을 나눈 것은 범주화하여 정리한 것에 해당한다.

#### [3~5] 연설을 준비하는 토의

##### 3. 정답률 90% 발표 전략 파악하기 (T2)

- ① 학생1이 청중들에 언급하면서 "주제에 대한 관심의 정도가 제각각"이라고 하였다.
- ② 학생1이 연설 장소가 넓은 강당을 언급하였다.
- ③ 학생들은 핵심 근거, 공감을 주는 근거, 경각심을 주는 근거의 제시 순서에 대해 토의하였다.
- ④ 학생들의 토의 주제는 연설 계획이다. 이들은 효과적 전달법을 모색하면서 주의를 끄는 방법이나 연

설 순서 등을 토의하였다.

⑤ '행동 변화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마무리하고자 하였으며 전달하는 형식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TIP : 의사소통의 종류

언어적 표현 : 말이나 글로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것. 대화, 편지, 채팅, 이메일 등

반(半)언어적 표현 : 말을 할 때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한 언어적 요소. 말투, 말의 속도, 목소리의 크기 등

비(非)언어적 표현 : 언어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의사소통을 돕는 구실을 하는 것. 말할 때의 자세, 동작, 표정 등

##### 4. 정답률 83% 의도, 관점, 입장 (T3)

- ① 학생3은 시 낭송을 ㉡로 제안하였고 학생1은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 ② 학생1은 인기 가요를 틀 것을 ㉡로 제안하였고 학생2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 ③ 학생2는 가볍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로 제안하였고 학생3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 ④ 학생1은 피해자의 고통을 ㉡의 핵심 근거로 제안하였고 학생1은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 ⑤ 학생2는 처벌성이 있다는 것을 ㉡로 제안하였고 학생3은 이 근거가 경각심을 준다는 점에서는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지만, 첫째 근거로 제시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 5. 정답률 83% 적절성 평가 (T5)

- ① 학생2의 의견으로 합의된 연설 계획에 포함된다.
- ② 학생3의 의견으로 합의된 연설 계획에 포함된다.
- ③ 학생1의 의견으로 합의된 연설 계획에 포함된다.
- ④ 학생3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이버 언어폭력 가해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내용은 언급된 바가 없다. 또한 가해자에게 죄의식이 없다는 내용은 학생2가 언급했지만 죄의식이 감소한다는 주장은 한 바가 없다. 따라서 이 선지는 '합의된 연설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⑤ 학생3의 의견으로 합의된 연설 계획에 포함된다.

### [ 작문 ]

#### [6~8] 미래 농업에 대한 기사 쓰기

##### 6. 정답률 85% 개요의 본문 반영 확인 (T2)

- ① ㉠(전망)은 2, 3, 4문단에 반영되었다.
- ② ㉡(중요성)는 1문단에 반영되었다.
- ③ ㉢(기술)은 2, 3, 4문단에 반영되었다.
- ④ ㉣(정책)은 언급된 바가 없다.
- ⑤ ㉤(현재 문제점)은 2, 3문단에 제시되었다. 2문단에서는 생산량 예측의 어려움, 3문단에서는 장소의 제약이 제시되었다.

##### 7. 정답률 82% 주장의 근거 찾기 (T4)

- ① ㉠은 [A] 마지막 문장에 활용되었다.
- ② ㉢은 [A]에서 '가뭄 피해, 수해, 냉해'를 포괄하는 상위 개념인 '기상 상태'로 일반화되어 활용되었다.
- ③ ㉡ '미래 식량 위기'는 아예 언급된 적이 없으므로 그 규모도 당연히 [B]에서 언급된 바가 없고, 경제적 효과의 규모도 제시되지 않았다.
- ④ ㉡은 [B]에서 '도심 곳곳의 고층 건물'이라고 활용되었다.
- ⑤ ㉡은 [B]에서 '온도와 습도, 이산화탄소 농도, 빛의 양 등 농작물 성장에 필수적인 요소들'이라고 활용되었다.

8. 정답률 81% 고쳐쓰기 방안 (T1)

정답 : ㉓

미래 농업에 대한 글에서 갑자기 어업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글의 흐름에 어긋난다. <보기>에서는 어업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였다. 또한 '우리 농업은 계속 발전할 것이다.'는 낙관적으로만 바라보는 단정적 추론이다. <보기>에서는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언급하고서 낙관적 전망을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개연적으로 진술하여 주장의 강도를 낮췄다.

[9~10] 의사소통에 대한 작문

9. 정답률 84% 쓰기 전략 파악하기 (T2)

- ① [A]는 상담 선생님을 찾아뵈었을 때의 상황이 떠올랐으므로 상담 경험을 떠올린 것이고, [B]는 의사소통 방법에 대한 책에서 읽었던 내용이므로 독서 경험과 관련지는 것이다.
- ② 소리꾼과 북제비의 관계를 [A]는 친동생과의 관계에 적용하였고, [B]는 친구와의 관계에 적용하였다.
- ③ [A]는 맛장구를 치며 북돋워 주는 북제비의 역할에 주목하였고, [B]는 소리꾼과 북제비가 오랜 시간 함께하며 교감하는 것에 주목하였다.
- ④ [A]에서는 '후회하면서도 말이다.'라고 반성하였고, [B]에서는 '나 역시 그런 경우가 있어 부끄럽다.'라고 반성하였다.
- ⑤ [A]와 [B] 모두 주변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 사례를 제시하였고,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내용은 없다.

10. 정답률 89% 제한 조건을 고려한 작문 (T4)

- ① 비유(등불)는 제시되었지만 핵심 내용(꾸준한 대화)과 무관하다.
- ② 핵심 내용과 효과는 제시되었지만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 ③ 비유(열쇠)가 제시되었고 핵심 내용(대화의 지속)과 효과(마음이 통함)도 제시되었다.
- ④ 비유가 제시되지 않았고 핵심 내용도 제시되지 않았다. 이 선지에는 '지속성'이 결여되어 있다.
- ⑤ 비유(지름길)는 제시되었지만 핵심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기다리는 것과 상호작용은 범주가 다르다.

[ 문법 ]

[11~12] 직접 구성 요소 분석 (형태론, 통사론)

11. 정답률 52% 정보의 추론과 해석 (T4)

☞ TIP : 형태 분석 표지 (고려대 사전, DAUM 사전)  
 + : 완전 어근/자립어  
 ± : 불완전어근/비자립어  
 - : 접두사  
 = : 접미사  
 - : 어미

- ① '나들이'+ '웃'이라서 합성어. 형태분석 [+나+들-이+웃], 직접 구성 요소인 '나들이'는 파생어이다.
- ② '눈'+ '웃음'이라서 합성어. 형태분석 [+눈+웃-음], 직접 구성 요소인 '웃음'은 파생어이다.
- ③ '드뎛'+ '-이다'라서 파생어. 형태분석 [=드+뎛-이\_다], 직접 구성 요소인 '드뎛-'은 접두사 '드'가 붙은 파생어이다.
- ④ '집집'+ '-이'라서 파생어. 형태분석 [+집+집-이], 직접 구성 요소인 '집집'은 합성어이다.
- ⑤ '놀이'+ '터'라서 합성어. 형태분석 [+놀-이+터], 직접 구성 요소인 '놀이'는 파생어이다.

12. 정답률 61% 정보의 추론과 해석 (T4)

- ① ㉓ 지회는 / 목소리가 굶다. (서술절) 이 문장의 주어는 '지회'는이다.
- ② ㉓ 소포가 도착했다/고 들었다. (인용절) '소포가'는 안은문장의 주어가 아니라 안긴문장(인용절)의

주어일 뿐이다.

- ③ ㉓ 동수가 / 미애에게 선물을 주었다. (단문) 동수는 이 문장의 주어이다.
- ④ ㉓ 그가 익명의 기부자임이 밝혀졌다. (명사절) 이 문장의 주어는 '그가 익명의 기부자임'이다.
- ⑤ ㉓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는 말은 / 명언이다. (관형사절) 이 문장의 주어는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는 말은'이다.

13. 정답률 57% 형태론 (T4)

- ① '-구나'에서 '구나'는 감탄을 나타낸다.
- ② '-는'은 현재 시제를 나타낸다.
- ③ '-겠-'은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거나 화자의 의지를 나타낸다. 문맥상 ㉓은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 ④ '-은'은 과거 시제를 나타낸다.
- ⑤ '-겠-'은 추측의 의미로 쓰였고, '-지만'은 역접을 나타내는 대등적 연결 어미로 쓰였다. 대등적 연결 어미에는 나열, 대조, 선택이 있다.

14. 정답률 89% 화용론 (T4)

- 정답 : ㉠
- ㉠ 어제 시점에서 내일이므로 '어제'가 아니라 '오늘'로 바꾼다.
- ㉡ 화법 예절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높이지 않으므로 '계시라고'가 아니라 '있으라고'로 바꾼다.
- ㉢ 언니의 관점에서 '나의 휴대 전화'이므로 '나의'가 아니라 '자기의'로 바꾼다.
- ㉣ 명령의 내용을 간접적으로 인용하여 옮기는 뜻을 나타내는 말이므로 동사의 어간에 '-라고'가 붙는다. 따라서 '남겨라고'가 아니라 '남기라고'로 바꾼다.

15. 정답률 45% 중세 국어의 관형격 조사 (T4)

- ① '하늘'은 무정 명사이므로 'ㅅ'이 사용되었다.

유정 명사		무정 명사
~높임의 의미	높임의 의미	ㅅ
양성	음성	
기	니	

예외) 끝음절이 'ㅣ'로 끝나는 경우에는 'ㅣ'가 탈락하고 'ㅣ/의'가 결합한다.

- ② '-을-'은 객체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로 사용되었다.

가, 바, ㅅ, ㅇ 뒤	ㄷ, ㅈ, ㅊ, ㅌ 뒤	유성을 뒤	
-습-	-줍-	자음 앞	모음 앞
		-습-	-을-

- ③ 중세 국어에서 '몇, 얼마, 누구, 언제, 어디, 무엇, 왜' 등의 물음말이 포함되어 있어서 듣는 이에게 대답을 요구하는 설형 의문문과, 단순히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관형 의문문은 현대 국어와 달리 종결 어미가 서로 달랐다.

설형 의문문	관형 의문문
-ㄴ고 ('오'형)	-ㄴ가('아'형)

- ④ 주격 조사는 모음이나 한자 표기 체언 뒤에는 'ㅣ', 자음 뒤에는 '이', 'ㅣ'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는 0(영형태)를 사용하였다.

자음 뒤	모음 뒤	
	'ㅣ' 모음 의미	'ㅣ'모음
이	ㅣ	∅

- ⑤ '밀'은 사람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므로 무정 명사이다. 또한 '밀에'에서 '-에'는 관형격 조사가 아니라 부사격 조사이다. 중세 국어에서 [처소]의 부사격 조사로는 '에, 예, 예, 이, 의' 등이 사용되었다. 선지의 용어들은 어렵지만 현대 국어를 보고 부사어와 관형어를 구분하면 답을 고를 수 있게 설계된 문항이다.

[ 고전시가 (연시조) ]

[16~18] 신율, 『방응시어』(수목 p.313. 연계)

지문의 현대어 해석

(가) 산 속 마을에 눈이 오니 돌길이 (눈 속에) 묻혔구나. 사립문을 열지 마라 나를 찾아올 이 누가 있겠는가. 밤중에 한 조각 밝은 달 그것이 벗인가 하노라.

(나) 서까래가 길거나 짧거나 기둥이 기울거나 뒤틀리거나 서너 칸짜리 초가집이 작다고 하는 것을 비웃지 마라. 이 산에 가득 자란 덩굴 풀에 비친 달이 내 벗인가 하노라.

(다) 한식날 비가 온 밤에 봄빛이 완연하다. 무정한 화초도 제 때를 알아 피었거든 어찌하여 우리의 님은 가고 아니 오는고

(라) 어젯밤 비 온 후에 석류꽃이 다 피었다. 연꽃이 피어 있는 연못가에 수경수술로 만든 발을 걸어 두고 누군가를 향한 깊은 근심을 못내 풀어 하노라.

(마) 창밖에 위석버섯 남이산가 일어나 보니 난초가 자라는 지름길에 낙엽은 무슨 일인가! 유한한 간경이 다 끊어질까 하노라.

16. 정답률 83% 표현 기법 (T2)

- ① 설의법은 사용되었지만 문답법은 사용되지 않았다.
- ② 대상의 모습이 대비되고 있으며, 과거와 현재가 대비되지는 않았다.
- ③ 초장과 중장에서 경치를 제시한 후에 종장에서 화자의 정서가 드러나고 있다.
- ④ 경치가 제시되어 계절감을 드러내고 있지만 '석류꽃'이나 '연꽃'에는 화자의 감정(그리움)이 이입되어 있지 않다. 또한 화자의 심리에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⑤ 자연물(낙엽)을 님이라고 오인한 것이지, 낙엽을 원관념으로 하고 인간을 보조관념으로 하여 비유하는 의인법이 사용된 것은 아니다. 또한 점층법도 사용되지 않았다.

17. 정답률 82% 문학 평론 적용하기 (T5)

- ① '시비를 열지 않는 것은 자발적 행위이지만, '눈'이 내린 것은 자연현상이라서 자발적 행위가 아니다. 눈을 화자가 겪는 시련의 보조관념으로 볼 수 있다.
- ② '수간모옥'은 물질적으로는 초라하지만 화자가 정신적으로 만족하는 공간이다. 화자는 수간모옥 주변의 경관을 전부 자신의 것이라 하고 있다. 따라서 답답한 심정이 투영되었다 볼 수 없다.
- ③ '만산나월'은 강호에서 충족감을 느끼고 있는 사대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님이 부재한 상황에서 오는 상실감과 구별된다.
- ④ '봄빛'은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시어로서 (다)의 종장에서 입에 대한 그리움을 촉발하는 정서적 상관물이 된다.
- ⑤ '부용 당반'은 화자가 입을 그리워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입과 함께 지내는 공간이 아니다.

18. 정답률 83% 해석하고 추론하기 (T4)

<보기>의 현대어 해석

벽사창 밖이 어른어른하거늘 님으로 여기고 펄펄 뛰어 뚝 나가서 보니

임은 아니고 명월이 만경한테 벽오동 젖은 잎에 봉황이 내려앉아 긴 부리를 휘어다가 두 날개에 넣어 두고 슬금슬금 깃 다듬는 그림자라.

마침 밤이었기에 망정이지 낮이었다면 날들이 웃을 뻔하였구나.

- ① 초장에서 모두 감각적 착각(임이 움)이 제시된다.
- ② 초장에서 모두 화자의 즉각적 반응(달려나가 봄)

이 제시된다.

③ 등장에서 모두 착각을 일으킨 대상(낙엽과 봉황)이 제시된다.

④ 등장에서는 모두 착각을 일으킨 대상에 대한 묘사가 제시되고 있다. <보기>에서 대상에 대한 비판은 제시되고 있지 않다.

⑤ (마)의 등장에서는 애간장이 녹는 고통이 호소되고 있고, <보기>의 등장에서는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다.

## [ 현대시 ]

[19~20] 윤동주, 「병원」 (비연계)

박목월, 「나무」 (수완 p.248. 연계)

19. 정답률 81% 표현 기법 (T2)

① (가)에는 색채 이미지(흰옷, 하얀 다리)가 활용되지만, (나)에는 색채 이미지가 활용되지 않는다. (가)의 대상은 병약하고 배경은 바람조차 없는 병원이다. (나)의 대상은 북쪽향 나무이다. 따라서 역동성은 드러나지 않는다.

② (가)에서는 비일상적 공간(병원)만 제시되므로 일상적 공간과 대비되지 않는다. (나)에서는 비일상적 공간(윤성, 초치원, 공주, 온양)과 일상적 공간(서울)이 단절 없이 연속되고 있어서 대비된다고 보기 어렵다.

③ (가)에 미래에 대한 소망(건강 회복)은 나타나지 않지만 전망은 나타나지 않는다. (나)에는 미래에 대한 전망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가)에는 추측이 없지만, (나)에서는 추측이 편주된다. ('수도승일까', '과객일까', '파수병일까')

⑤ (가)는 시간적 범위가 '제철'이 아니라 '한나절'이다. (나)의 핵심 사물인 나무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다. 여정에 따라 변화하는 것은 화자의 심리이다.

20. 정답률 87% 문학 평론 적용하기 (T5)

① 주된 서술 대상이 (가)는 여자이고 (나)는 나무들이다.

② 공간의 대상이 (가)는 여자이고 (나)는 나무들이다.

③ (가)의 화자와 여자 사이에 공유되는 것은 '건강 회복'의 소망이며 '늙은 의사'에 대한 원망은 아니다. (나)에서 화자가 주목하는 것은 나무의 모습이지 나무의 위치가 아니다.

④ 급진화 한 포기를 따 가슴에 꽂는 행위는 꽃처럼 되고 싶다는 행위로 해석할 수 있고 '회복'을 소망하는 행위로 확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즉, 반드시 그렇게 해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작품 내 다른 요소들과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는 해석이다.

⑤ (가)의 화자는 병을 앓고 있다는 점에서, (나)의 화자는 침울하고 고독하다는 점에서 대상과의 동질성을 확인하고 있다.

## [ 시나리오 · 현대소설 ]

[21~24] 황순원, 「독 짓는 늙은이」 (비연계)

21. 정답률 68% 평론 적용하기 (T5)

① '이건 독이 아니야'는 실용적 기준이 아닌 미적 기준을 보여준다. '일어났다'가 쓰러지고, 일어났다'가 쓰러지고'는 지속성이 있어 의지의 좌절로 볼 수 없다.

② '흙덩이다!'는 미적 가치 판단이 담겨 있다.

③ 석현(조수)과 송 영감의 갈등이 반영되어 있다.

④ <보기>에 따르면, 이 작품은 극복 의지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송 영감이 주저앉아 우는 것은 미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의 어려움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지만, (나)를 통해 제시되는 다음 장면에서도 계속 독 짓기에 집착하는 것으로 볼 때, 집념이 좌절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술내를 다 먹는 듯 했다'는 '목이 메어 오르는 것'과 함께 송 영감의 신체와 정신에 문제가 생겼음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장으로서의 능력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⑤ ④와 대비되는 선지이다. 포기하지 않는 것은 집념과 열의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22. 정답률 83% 해석하기 (T4)

① '옥수'는 '송 영감'의 질문에 답한 것이다. '옥수'가 독을 걱정한다는 것은 알 수 없으므로 비교할 수 없다.

② '행손이'가 '송 영감'을 제지하는 것은 "자네 환장했구먼!"에서 알 수 있듯이, 오만해 보여서가 아니라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③ '석현'은 성한 것도 있다고 말하고, '송 영감'은 모두 독이 아니니 부숴야 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석현'과 '송 영감'의 기준은 다르다.

④ '송 영감'이 쓰러진 것은 의도와는 무관하게 정신을 잃은 것이다.

⑤ '애'가 기다리는 사람은 '조수'와 함께 오는 '어머니'이지 '행손이'와 '아버지'가 아니다.

23. 정답률 78% 서술 방식 (T2)

① 시간은 단계적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달아난 '아내'와 '조수'에 대한 갈등은 해소되지 않는다.

② 서술자의 개입과 판단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

③ 작품 속 인물이 아니라 작품 밖 서술자가 서술하고 있다.

④ '송 영감은 분노가 확 치밀어'는 인물의 심리가 직접 제시를 통해 제시되고 있는 부분이다.

직접 제시	간접 제시
서술자가 직접 인물의 성격, 특성, 심리 등을 이야기하는 방법 (말하기)	인물의 행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보여 주는 방법 (보여주기)

⑤ '송 영감'이 밥그릇을 밀쳤다가 다시 끌어다 먹으면서 사물(밥그릇)과 인물(송 영감) 사이의 거리는 변하지만 [A]에 등장하는 두 인물인 '애'와 '송 영감' 사이의 공간적·심리적 거리는 거의 일정하다.

24. 정답률 72% 원리 적용하기 (T5)

① '햇볕을 받아 더욱 고답하다'는 지시문을 통한 시각적 묘사에 해당한다.

② '나가떨어지는'은 인물의 행동에 대한 지시문이다.

③ '뚜왕 뚜왕 뚜왕'은 영화 기법 용어(효과음)를 통한 기법이다.

④ (나)에서 말하기를 통해 진술된 내용이 (가)에서는 시각적 묘사로 제시되었다.

⑤ '제힘만이 아닌 어떤 힘으로 벌떡 일어나'와 '마치 자기 심장이 박살 나는 것처럼 느껴지는'은 비직접적 내적 조망이기 해당하기 때문에 심리 묘사에 해당하며, 시각적 묘사와 할 수 없다.

외적 조망 (직각적)	내적 조망 (비직각적)
배경 묘사, 외양 묘사 행동 묘사 등	심리 묘사

## [ 기술 · 예술 ]

[25~30] 건축재료와 건축미학 (비연계)

25. 정답률 87% 글의 구조 파악 (T2)

① 콘크리트, 철근 등의 특성을 설명하였고, 콘크리트→철근 콘크리트→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로 발전하는 과정을 서술했으며, 사보아 주택과 킴벨 미술관의 공간적 특징을 설명하였다.

② 건축물에 대한 평가는 저자의 평가만 유일하게 제시되었으므로 상반된 평가는 제시되지 않았다.

③ 건축물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만 제시하였으므로 한계에 대한 평가는 제시되지 않았다.

④ 건축물의 미적 가치에 대해서는 언급했지만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⑤ 저자의 평가만 제시되었으므로 시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지 않았다.

26. 정답률 77% 정보의 확인과 재구성 (T1)

① 돔의 상부로 갈수록 두께를 줄였다.

② 지붕에는 정원이 조성되었다.

③ 킴벨 미술관에는 인장력이 강화된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가 사용되었다.

④ 판테온은 지붕의 중앙에 큰 천창을 내었고, 사보아 주택은 목욕실 지붕에 작은 천창을 내었다.

⑤ 킴벨 미술관은 전시 공간이 하나의 층으로 이루어져 층 구분이 되어 있지 않지만, 사보아 주택은 2층의 주거 공간이 있으므로 층이 구분되어 있다.

27. 정답률 75% 추론하기 (T4)

① 철재는 콘크리트보다 인장 강도가 높다. 철재는 철근 콘크리트의 구성요소이며, 철재와 철근 콘크리트의 인장강도는 지문에서 비교되지 않았다.

② 철근을 콘크리트에 보강제로 사용할 때에는 압축력이 아니라 인장력을 많이 받는 부분에 넣는다.

③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도 콘크리트가 굳는 과정이 있으므로 수화 반응이 일어난다.

④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는 철근을 당긴 상태에서 당긴 힘을 제거해 철근이 줄어들는 것을 이용하는 것이므로 철근의 복원력을 이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철근이 줄어들면서 압축력이 작용하여 외부의 인장력에 대한 저항성이 높아진다고 했다.

⑤ 골재를 간의 접촉을 높여야 강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서로 다른 크기의 골재를 배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따라서 균일한 크기의 자갈보다 다양한 크기의 자갈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28. 정답률 37% 오답률 4위

자료를 해석하고 추론하기 (T4)

① 압축력에 의한 변형 정도는 철재(A)가 콘크리트(B)보다 작으므로, 동일한 압축력이 가해졌다면 A는 B보다 높이가 적게 줄어들었을 것이다.

② A의 프아송 비(Δ지름/Δ높이)는 0.3이어서 1이 넘지 않으므로 Δ지름보다 Δ높이가 더 컸을 것이다.

③ B의 프아송 비(Δ지름/Δ높이)도 0.15라서 1이 넘지 않으므로 Δ지름은 Δ높이보다 작았을 것이다.

④ 프아송 비는 일정하므로 높이의 변화량이 같다면 지름의 변화는 A가 B보다 2배 더 크다. 따라서 A의 지름이 B의 지름보다 2배 더 늘어났을 것이다.

⑤ 지름의 변화량이 동일하다면 A는 B와 비교할 때, 높이의 변화량이 절반이어야 한다.

29. 정답률 76% 글의 구조 파악 (T2)

① "철골은) 산화 방지 조치를 하여 사용한다."라는 문장은 구문적으로 단정적인 진술이다.

② 철골은 직선의 형태로 제작된다.

③ 막혀 있는 벽 대신 간격이 벌어진 기둥으로 하중을 지지하는 것은 개방감을 준다.

④ 더 가는 기둥으로 간격을 더욱 벌려 세우려고 한다면 철근 콘크리트보다 철골이 더 적합하다.

⑤ 벽 대신 기둥으로 하중을 지지하면 공중에 떠 있는 느낌을 준다.

30. 정답률 89% 어휘력 (T1)

① 생겨나는 사물이나 현상.

② 지문의 원형은 둥근 모양(圓形), 선지의 원형은 본디의 꼴(原形)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두 단어는 동음이의어 관계이다.

③ 차지고 끈끈한 성질.

④ 으똌으로 삼음.

⑤ 창조적인 일의 계기가 되는 기발한 착상이나 자극.

## [ 과학 ]

[31~34] 열과 일의 개념 (수북 p.162. 연계)

31. 정답률 69% 정보의 확인과 재구성 (T1)

- 열기관은 열을 일로 변환하는 기관이다.
- 수력 기관의 효율은 물의 온도 차이가 아니라 물이 차이에 영향을 받는다.
- 칼로릭은 질량이 없으므로 질량 변화가 없다.
- 칼로릭은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입자이다.
- 톱슨에 의해 칼로릭의 존재는 부정되었지만, 클라우지우스에 의해 카르노 이론의 일부는 유지되었다.

32. 정답률 49% 추론하기 (T4)

- 화학 에너지와 전기 에너지는 전환될 수 있다.
- 열의 실체가 칼로릭이라면 열기관이 흡수한 열은 일 에너지로 전환되지 않고 전부 방출된다. 그렇다면 일 에너지는 열 에너지가 전환된 것이 아니라 생성된 것이어서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된다.
- 이 방향성 개념은 엔트로피의 개념을 낳았다.
- 클라우지우스의 증명에 해당한다.
- 카르노의 이론에서 유지된 부분이다.

33. 정답률 35% 오답률 2위 추론하기 (T4)

정답 : ㉔

줄의 실험	<보기> 실험
일열 열로 전환 (효율 100%)	열을 일로 전환 (효율 100% 미만)
$\frac{B}{A}$ = 필요한 일의 양 발생한 열의 양	$\frac{B}{A}$ = 얻어진 일의 양 흡수한 열의 양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줄의 실험보다 <보기> 실험의 열 효율이 작기 때문에 열의 일당량이 더 작다. <보기>에서는 열의 일부는 일로 전환되지 않고 소실된다. "열 효율이 100%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단정적으로 진술된, 예외가 없는 법칙이므로 흡수한 열의 양이나 작동 온도의 차이 등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34. 정답률 86% 어휘력 (T1)

	지문	선지
①	지목하여 말한다.	일어나게 하다.
②	처리하다.	사용하다.
③	액체가 움직이다.	이야기가 풀리다.
④	기준에 맞지 않거나 벗어나다.	
⑤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벌어지다.	(무엇이 어떠하게) 이르게 되다.

## [ 사회 ]

[35~39] 사단 법인의 법 인격 (비연계)

35. 정답률 47% 정보의 확인과 재구성 (T1)

- 운영 기구를 두는 것은 사단의 필요조건이다.
- 사단의 구성원을 사원이라고 하는데, 사단인 주식회사의 구성원은 주주들이므로 주주들은 사단의 사원에 해당한다.
- 법인격을 얻으면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사단 법인도 사단이며, 사단은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계없이 존속한다.
- 사단이라 하더라도 법인으로 등기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권리 능력을 갖지 못한다. 권리 능력을 주는 제도는 '법인 제도'이다.

36. 정답률 31% 오답률 1위

정보의 확인과 재구성 (T1)

- "일인 주주가 회사의 대표 이사가 되는 사례가 많다. 이처럼 일인 주주가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 되면..." (2문단) '이처럼'이라는 접속사에 주목해 본다면 대표 이사가 되는 것은 곧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 되는 것이다.
- 사람의 권리 능력과 법인격은 엄격히 구별된다.

따라서 회사가 진 빛은 회사가 값으며, 사원(대표이사)이 갖지 않는다.  
 ③ 주식회사에서 이사의 보수를 결정하는 것은 이사회가 아니라 주주 총회이다.  
 ④ 주식회사에서 업무 집행의 의결 기관은 주주 총회와 아니라 이사회이다.  
 ⑤ 이사의 상속, 매대, 양도 등으로 일인 주식회사로 바뀌는 경우가 있다.

37. 정답률 58% 정보의 확인과 재구성 (T1)

- 사원은 사단의 구성원이지만 법인격과 엄격하게 구별된다.
- 사단의 체부에 대한 책임을 말한다.
- 일인 주식회사는 사람들의 결합체인 단체로서의 성격이 없다.
- '독립된 주체로서의 경영이 아니라 마치 ㉔ 개인 사업자의 영입처럼 보이는 것이다'라고 했으므로 ㉔는 독립된 주체로서의 경영과 대비되는 것이다.
- 회사에서 발생한 이익이 대표 이사인 주주에게 귀속된다면 회사의 자산은 상대적으로 감소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회사의 권리 능력까지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8. 정답률 45% 추론하기 (T4)

- 회사의 경영이 이사회에 장악되어 있다면 이사회 기능이 퇴색되었다고 볼 수 없다.
- 법인격 부인론은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따라서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되지 않았다.
- 특정한 거래 관계에 관해서만 예외적으로 부인하는 것이므로 영구적 박탈이 아니다.
- 법인격 부인론은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는 것이 지 개인의 권리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 법인격 부인론의 도입 취지를 설명하면서 '회사에만 책임을 묻는 것은 법인 제도가 남용되는 사례라고 보는 것이다'라고 했으므로, 책임을 주주에게도 부담시키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39. 정답률 35% 오답률 2위 어휘력 (T1)

- 자격이나 조건을 빠짐없이 지니다.
- 함께 갖추어져 있다.
- 빠짐없이 갖추다.
- 대응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다.
- 필요할 때를 위해 미리 준비하다.
- 질서 있게 바로잡다.

## [ 고전소설 ]

[40~45] 「김현감초」 (비연계)

김사슴, 「이생규정전」 (수북 p.153. 연계)

40. 정답률 69% 정보의 확인과 재구성 (T1)

- 전기에서 작가는 기이한 사건(비현실적 사건)을 다루었다.
- 전기는 서사 구조가 유기적이지 않았고, 결말의 유형도 다양해서 전형적이지 않았다.
- 전기소설이 아니라 전기 작품집을 출세의 수단으로 삼았던 관습에서 유래했다.
- 전기소설이 전기의 영향을 받아 성립했다.
- 전기소설의 창작 동기는 작가의 불우함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해 작가의 분신을 남 주인공으로 하는 서사 구조가 유기적으로 짜여졌다.

41. 정답률 66% 평론 적용하기 (T5)

- (나)의 주인공은 '천명'이라는 말에 물러서고 있다.
- 파도기적 작품인 (나)의 문체는 경이로운 세계의 일부분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 전기소설인 (다)의 주인공인 이생은 폐쇄성을 지니고 있다.
- 최남은 혼백을 의탁할 곳이 없으므로 소외된 존재라 할 수 있고, 자신의 소외를 부당하다고 여겨 금기를 어기고 환신으로 돌아와 이생과 함께 하고 있다.
- 이생과 최남 등 인물 간의 갈등은 나타나 있지 않다. (가)에서 (다)의 갈등은 '개인인 세계 사이의 갈등

관계를 형상화한 것'이라고 하였다.

42. 정답률 69% 정보의 확인과 재구성 (T1)

	(나)	[A]
①	김현은 여주인공과 울면서 헤어졌고, 절을 세웠다.(○)	함께 오래 살다가 백년 후에 같이 세상을 떠나자고 하였다.(○)
②	자신의 죽음이 저의 소원이고, 낭군의 경사라 하였다.(○)	죽은 자가 이승에 오 래 머물면 안 된다 하였다.(×)
③	여주인공은 자신을 잊지 말라고 부탁하였다.(×)	여주인공은 자신의 유골을 거둬달라고 부탁했다.(×)
④	김현은 범이 죽은 후에 벼슬에 올랐다.(○)	이생은 최남의 부탁을 들어준 후에 범이 나서 죽었다.(×)
⑤	김현은 등용되었다.(×)	이생은 세상을 떠났다.(○)

43. 정답률 65% 정보의 확인과 재구성 (T1)

- 김현의 소망은 벼슬에 대한 것이었고, 범의 회생은 부처의 응답에 해당한다.
- 범이 사람을 해치는 것은 김현의 욕망 실현을 돕는 것이다.
- 김현과 범 사이에는 긴장감이 없으므로 해소되지는 않는다.
- 김현이 벼슬을 받는 것은 부처의 뜻이 실현되는 것이어서 임금의 의지라고 할 수 없다.
- 부처가 감동한 것은 김현의 벼슬에 대한 간절함이다. '부처가 감동하여 범의 회생으로 응답하고'라고 되어 있으므로 부처의 감동이 범의 회생보다 시간적으로 앞선다.

44. 정답률 77% 정보의 확인과 재구성 (T1)

- 이 소설은 개인과 세계의 갈등 관계를 형상화한 것이다. '형액'은 '이러 같은 놈들'을 의미한다.
- 작 잃은 새는 사랑을 잃은 자신을 비유한 것이다.
- 이생은 금기를 어긴 사랑을 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 이 장면에서 최남은 이생과 함께 하는 것을 어쩔 수 없이 체념하고 있다.
- 최남이 자신의 욕망 실현을 포기하는 이유는 자신의 욕망보다 남주인공의 안위가 우선시되기 때문이다.

45. 정답률 57% 평론 적용하기 (T5)

- '가산을 물어 둔 곳'은 현실 세계이므로 이계가 아니다.
- 최남의 환신이 이생에게 먼저 함께 할 것을 제안하는 것은 능동적이라 할 수 있다.
- 최남과 이생의 사랑은 금기를 넘어선 것이다.
- 이승과 저승이라는 이원적 공간 구도를 보여준다.
- 시가 애정 교류의 매개가 되었다는 것은 '집에서 늘 최남과 시를 지어 주고 받으며 즐거이 세월을 보냈다.'에서 알 수 있다.

SDSS (Study Decision Support System)

SDSS는 수능국어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의 공부 방향과 계획 수립을 위해 이원준 선생님이 직접 개발한 학습의사결정지원시스템입니다. 평가원의 평가목표에 따라 이원준 선생님 5가지로 분류한 문항 유형별 약점을 체크하여 올바른 학습 방향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http://sdss.kr>

\* 이 해설지는 이원준국어연구소의 저작물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